

“업사이클링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 코끼리별꽃

충남사회적경제 도민기자단

김 효 성

짧아진 장마, 열돔에 갇힌 더위, 국지적인 폭풍우 등 이전의 날씨와 다른 이상기후로 온 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고, 전 세계의 이상고온 현상 등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재난에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산하고 있다. 이에 단순한 개인의 실천을 넘어서 기업의 적극적 역할에 대한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여기, 환경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지역 사회에서 활발한 환경과 관련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업력 5년차. 업사이클링 (예비) 사회적 기업 코끼리별꽃이 있다.

사람, 희망, 행복...코끼리별꽃

“**사람**을 상징적으로 대변하는 **코끼리**와 **희망**을 나타내는 **별**, 그리고 **소소한 행복**을 나타내는 **꽃**. 세가지 단어를 합쳐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행복을 느끼게 하는 일을 해보고 싶다는 뜻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최민경 대표)



업사이클링 제품을 만드는 최민경대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환경교육진행
(사진제공: 코끼리별꽃)

최민경 대표는 특히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환경 교육의 부재와 교육의 필요성을 크게 느꼈다. 전공인 도예와 교육을 어떤 식으로 접목해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2013년부터 사회적기업 관련 강의를 들으러 다녔다. 육성 사업 당시, 한 프로젝트를 통해 시작된 인연으로 전소영 대리와 최민경 대표는 따뜻한 여정을 함께 이어가고 있다.

”저는 환경 문제에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업사이클링의 개념을 접하고 코끼리 별꽃에서 일하고 공부하면서 일상 속에서도 환경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실천하려고 전보다 훨씬 노력하게 되었어요. 이제는 환경에 대한 이슈들을 알리고자 하는 역할을 스스로 하고 싶다는 마음이 커져서, 지금까지도 하게 된 것 같아요.“ (전소영 대리)



업사이클링 제품을 만드는 작업사진(사진제공: 코끼리별꽃)

업사이클링(재활용)은 폐자원을 활용해 환경적 가치를 담아 새로운 제품을 창조하는 것으로 리사이클링(재활용)과는 또 다른 방식이다. 코끼리별꽃의 대표적 업사이클링 제품은 비닐을 활용한 두에코(브랜드명) 카드지갑과 키링이다. 아이디어의 시작점은 비닐 만장을 사용해 제품을 만들어보자는 '비닐 만장 프로젝트'였다. 택배 시 사용되는 비닐, 검은 비닐 봉지 등의 PP와 PE를 사용하며 비닐 12장으로 1개의 실용적인 카드지갑, 비닐 1장으로 키링을 만든다.



매력적인 빈티지 색감의 실용적인 비닐지갑과 키링(사진제공: 코끼리별꽃)

가치를 아는 시선, 행복한 시선 만들기

기업의 또 다른 주요 활동은 환경 교육으로, 성인 및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자체 제작한 워크북과 환경교육키트를 활용하고있다. 어린이 프로그램의 경우, 온라인 콘텐츠를 이용해서 진행하며 콘텐츠에 포함된 환경 애니메이션은 콘티제작과 더빙 등 전 과정에 참여했다.

업사이클링에 대한 이해, 탄소발자국 줄이기 등의 여러 주제들을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고, 현재 환경 교육 인증을 받기 위한 절차를 밟아가는 단계이다.



성인 대상 환경교육패키지와 수강생들의 작품(사진제공: 코끼리별꽃)



다양한 주제로 자체적으로 개발한 워크북(사진제공: 코끼리별꽃)

이들의 소셜 미션인 '가치를 아는 시선, 행복한 시선 만들기' 처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일은 다양한 분야를 통해 지역사회 내에서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소외된 계층에 대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천안시 휴브릿지 주간보호센터의 성인 발달 장애인분들에 대한 미술 지도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미술 지도 뿐 아니라, 발달장애작가분들의 작업물을 모아서 전시를 하거나 판매하는 과정도 돕고 있다. 올해 10월 중

으로 전시 예정에 있으며, 8월 말 부터 다시 수업을 재개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직원들과 '점심먹고 쓰레기줍기' 활동을 자체적으로 진행하면서 동네의 쓰레기들을 수거하는 일상 속 실천을 보여주고 있다.



휴브릿지봉사활동, 코별일상 점심먹고 프로젝트(사진제공: 코끼리별꽃)

끝으로, 대표는 코끼리별꽃이 좋은 비즈니스 기업 모델로서 존속하면서 앞으로도 진정성을 가지고 사회문제를 고민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기업들이 계속해서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환경관련 사회적 기업을 꿈꾸는 예비 창업자에게는 사업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명확히 세우고 수익구조, 문제해결방식 등의 비즈니스 모델을 충분히 고민하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업사이클링 교육 및 제품제작

예비사회적기업 주식회사 코끼리별꽃(대표 최민경, 041-522-2534)